

창립 70주년을 맞아 현대건설의 역사를 바로 알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에서 글로벌 특 건설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눈부신 발자취를 <사보신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1
2017/03/28/Tuesday



남산호터빌



마포아파트

④1960년대 국내 프로젝트(III)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기준을 제시하다

최초의 아파트, 마포아파트

1960년대 후반부터 대도시, 특히 서울의 경제 규모가 급속히 팽창했다. 이 무렵, 현대건설은 건축부문을 중시하는 방침으로 전환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인력을 보강했다.

대표적인 공사가 바로 마포아파트다. 1961년 10월 착공한 마포아파트는 국내 최초로 건설된 6층짜리 10동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다. 마포아파트 공사는 주택건설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구조인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는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널리 이용되지 않던 구조였다. 그 때문에 1960년대 초반 이와 같은 시공 경험을 한 것은 후일 귀중한 자산으로 남았다.

1966년 9월부터 약 1년간 지은 세운상가아파트는 서울시의 첫 번째 도시재개발사업이었다. 세운상가아파트는 국내 최초의 대형 복합건물로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였다. 이듬해 착공한 힐탑외인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조의 11층 건물 1동으로 건축자재 대부분과 급수·위생·난방·전기·가정 등을 일본에서 도입한 공사다. 일부 일본 자재 중 설계도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아 공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최신 규격의 자재는 기술적으로 낙후된 한국 건축업계의 귀중한 연구자료가 됐다. 이때의 시공 경험과 기술은 그 후 고층 건물을 시공하는 발판이 됐고, 최신 장비를 동원함으로써 건축공사의 기계화를 가져왔다.

문화방송 사옥 역시 현대건설이 시공한 역작이다. 애초 문화방송은 인사동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대폭적인 확장이 필요해 1967년 10월 중구 정동에 18층 높이로 새롭게 들어섰다.

현대건설은 1960년대 중반 전력사업 뿐 아니라 시장 확대 일환으로 통신·전화 분야에 진출했다. 이 시기 현대건설은 부산 초량전화국·노량진전화국·진주 남강전화국·서울타워 등을 짓는다. 1969년 시공한 서울타워는 국내 통신시설의 핵심이었다. 국내 각 방송 전파를 송신하는 종합송신탑과 관광전망대로 활용

하기 위해 세워진 서울타워는 탑 꼭대기가 해발 497.7m로 1975년 완공 당시 아시아 최고의 높이를 자랑했다. 이 공사는 산 정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 그대로 노출됐고,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시공 방법이 요구됐다. 현대건설은 풍압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일로 공법을 이용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원형 탑신을 축조하는데 성공했다. 설립 당시 이 탑은 '남산종합송신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1974년 10월 '서울타워'라는 공식 명칭으로, 1981년 10월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다.

남산 1호터빌은 삼일도와 한남대교를 연결하는 터널로 1969년 착공했다. 시공 과정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사와 누수방지공사의 작업 순서가 바뀌어 심각한 누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완공 후 터널의 좌우측에 다시 내벽을 막아 문제를 해결했다. 이 터널에는 국내 처음으로 완전한 조명설비와 반황류식 환기설비가 구비돼 있다. 터널 중간부분에는 자동차가 라이트를 켜지 않고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60럭스의 전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시공한 양화대교

현대건설은 1960년대 후반의 장대교 시장을 독점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 수주한 거제교·강화교·한남대교(당시 제3한강교)를,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는 서울대교·잠실대교·남해대교 등을 준공했다. 이중 양화대교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시공한 최초의 다리다. 길이 1048m, 폭 18m의 4차로 교량인 이 다리의 건설에는 일일 평균 13명의 직원과 150여 명의 기능공이 참여했는데, 연간 투입된 인원으로 보면 무려 17만 명이 넘는 수치다.

거제도를 육지에 연결하는 거제교는 1965년 착공해 6년2개월 만에 완공했다. 완도·강화·안면도에 이어 한국에서 네 번째로 건설된 연륙교로, 국내 최초로 '공기 케이슨 공법'이 쓰였다. 이 공

법은 잠막 밑에 작업실을 만들고 그 속에 압축공기를 보내 물을 배제하고, 대기 속에서의 같은 상태에서 굴착하는 특수 기술이다. 수심이 깊고 지반 지질의 깊이는 곳까지 점토층이 있어 기초를 튼튼히 해야 했는데, 이 공사에서 현대건설은 발전기·선박 등 각종 보유장비를 총동원했다.

1968년 착공한 남해대교는 교량건설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공사였다. 당시 기술감독관이나 현대건설의 기술자가 현수교 건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 국내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또한 다리 밑은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 전투가 있었던 노량해협으로 물살이 매우 거세 난항이 예상됐다.

현대건설은 국내에서 공수할 수 없었던 230톤급 해상기중기, 1200마력의 예인선 등 총 19종 118점을 일본에서 들여왔다. 현대건설 직원들은 설계도면을 철저히 익히고 전문서적을 구해 읽는 등 현수교 가설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계획서를 면밀하게 작성해 시방서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 나가

④Domestic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1960s (III)

The economies of Seoul and other major cities grew at a rapid pace at the end of 1960s. Combined with a rapid growth in commercial, financial and education sectors, an investment in private facilities was expanded. Around the time, Hyundai E&C changed its business strategy to put a balanced emphasis on the existing civil engineering business and new building works, and increased the number of technical workforce in the division of building works.

As part of the new business strategy, Hyundai E&C started the construction of the Mapo apartment complex in October 1961. The complex is Korea's first apartment complex consisting of 10 six-storey buildings. It marked the

beginning of a revolution in the construction of residential buildings in the country.

Later, construction-related experience and technology amassed from the extensive projects conducted by Hyundai E&C helped the company lay a solid foundation in the construction of high-rise buildings. Korea's primary builder contributed to the acceleration of mechanization in the area of building construction by introducing state-of-the-art construction equipment.

To expand the market, Hyundai E&C tapped into not only the power generation market, but communication projects in the mid-1960s.

Hyundai E&C took the sole lead in the construction of long-span bridges in the 1960s. During the period of the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 builder received the orders to construct the Geoje Bridge, the Ganghwa Bridge and the Hannam Bridge called the Hangang Bridge No. 3 at that time.

For the second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 company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Seoul Bridge, the Jamsil Bridge and the Namhae Bridge photo1. Among them, the Yanghwa Bridge photo2 was the country's first bridge that was built based on Korea's own technology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from designing to construction. Hyundai E&C began the construction of the Geoje Bridge photo3 in 1965 and completed it in six years and two months. To build the bridge connecting Geoje Island and the peninsula, the company adopted the pneumatic caisson method,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country.



1



3

1 해상 크레인을 직접 설계·제작해 사용한 남해대교. 2 제2한강대교라 불리기도 한 양화대교가 완공된 모습. 3 6년2개월에 걸쳐 완공한 거제교.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재개발사업을 비롯 1960년대 후반 장대교 시장 독점... 국내 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해

기 시작했다. 또한 박스형 장대교 최신 공법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남해대교를 완공했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강 지류에 위치한 원효교(1962년 착공), 서울과 강화를 잇는 강화교(1965년 착공), 한남대교(1966년 착공), 마포대교(1968년 착공) 등을 잇따라 성공적으로 시공해 교량건설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발휘했다.



2